



미 증시, 퍼스트시티즌스의 SVB 인수 소식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7 일(월) 미국 증시는 퍼스트시티즌스은행(FCNCA)의 SVB 인수 및 FDIC 의 지원 보도, 도이치뱅크의 주가 반등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은행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마감 (다우 +0.6%, S&P500 +0.16%, 나스닥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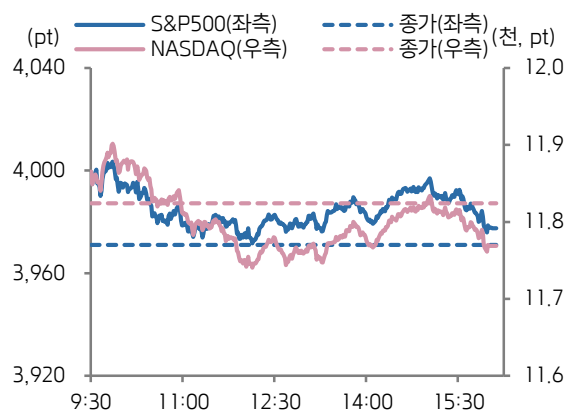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시티즌스은행(FCNCA)이 약 720 억달러(약 94 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SVB 를 75% 이상 할인된 가격인 165 억달러(21 조 4 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보도. 약 900 억 달러(117 조원) 에 달하는 증권 및 기타 자산은 FDIC 의 법정관리에 남게되고 FDIC 는 최대 5 억 달러 상당의 퍼스트 시티즌스 보통주에 대한 주식상당권리(EAR)를 받게 된다고 보도. 또한 FDIC 가 퍼스트시티즌스에 SVB 인수 2 년 내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700 억 달러 규모의 크레디트라인 제공, 향후 5 년 간 상업 대출 손실이 50 억 달러가 넘을 경우 손실 보장을 해주는 내용 포함.

도이치뱅크가(6.15%)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기준 예금의 70%가 독일에 있고 이중 절반가량이 개인 고객, 45%는 은행과 기업이며, 전체 대출에서 5260 억 달러 중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4%라고 밝힘. 또한 고금리, 고위험의 레버리지대출은 총 대출의 약 1% 라고 언급. 일각에서는 예금자 기반이 다양하고 예금의 대부분이 독일에 있다는 점은 안도할 만하다고 평가. 이에 지난 금요일 2.3%p 대까지 확대되었던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은 2.0%p 대까지 하락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이치뱅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약 35 억 5600 만 달러 중 절반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음을 지적. 이날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코메르츠뱅크(+3.76%), BNP 파리바(+2.62%) 등 유럽 은행들도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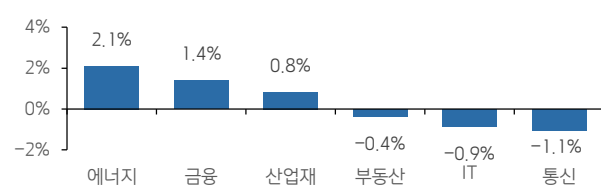
ECB 는 SVB, CS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2 월 유로존 은행들은 기업들에 30 억유로가량의 대출을 축소했다고 밝힘. 2 월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1 월의 5.3%에서 둔화. 일각에서는 최근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고, 최근의 혼란이 현시점에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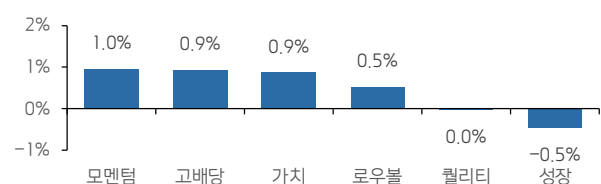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09.22	-0.24%	USD/KRW	1,301.40	+0.57%
코스피 200	312.85	-0.46%	달러 지수	102.84	-0.27%
코스닥	827.69	+0.43%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214.28	+0.28%	USD/CNH	6.88	+0.02%
S&P500	3,977.53	+0.16%	USD/JPY	131.55	-0.02%
NASDAQ	11,768.84	-0.47%	채권시장		
다우	32,432.08	+0.6%	국고채 3년	3.226	+5.6bp
VIX	20.60	-5.24%	국고채 10년	3.262	+4bp
러셀 2000	1,753.67	+1.08%	미국 국채 2년	3.995	+22.9bp
필라. 반도체	3,083.58	-1.21%	미국 국채 10년	3.530	+15.4bp
다우 운송	13,887.20	+1.32%	미국 국채 30년	3.760	+11.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64.62	+0.82%	WTI	72.81	+5.13%
MSCI 전세계 지수	626.52	+0.23%	브렌트유	78.16	+4.23%
MSCI DM 지수	2,702.42	+0.37%	금	1971.5	-1.51%
MSCI EM 지수	964.01	-0.84%	은	23.15	-0.83%
MSCI 한국 ETF	59.49	-0.34%	구리	407.85	+0.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4.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퍼스트시티즌스의 SVB 인수라는 호재성 재료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자심리 변화 3. 업종 내 종목 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2 차전지주들의 주가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 월 중 은행권 유동성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SVB 를 또 다른 지역은행인 퍼스트시티즌스(+53.7%)가 이들의 자산 720 억달러를 165 억 달러에 인수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퍼스트리퍼블릭뱅크(+11.8%) 등 미국 지방은행들과 도이체뱅크(+4.7%)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연출.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인 VIX(연중 고점 3 월 13 일 26pt → 27 일 현재 26pt)나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인 MOVE(연중 고점 3 월 15 일 198pt → 27 일 현재 161pt) 모두 하락하면서, 한 때 극도의 비관으로 치달았던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

물론 역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은행권 위기가 발생했을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맞음. 또한 2022 년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MBS 채권에 대한 미실현손실이 약 3,600 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FDIC 데이터), 상업용 부동산에서 중 소형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점(CE 데이터)도 잠재적으로 우려가 되는 요인. 향후 중 소형 은행들의 신용여건 악화로 인한 대출 축소 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연쇄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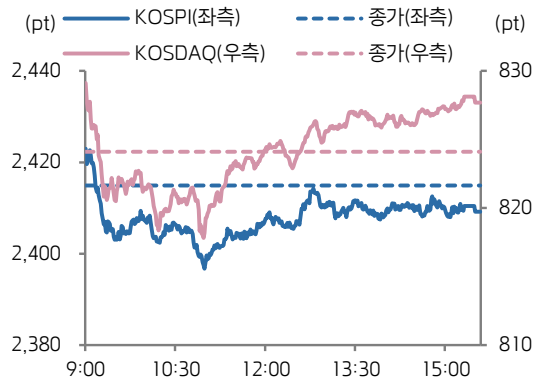
다만, 금번 위기는 지난해부터 예상해왔던 알려진 악재의 영역에서 전개가 되고 있으며, 27 일 금융 당국에서 연준과 FDIC 에서 최근 가동했던 대출프로그램인 BTFP(적격 금융기관에 1 년동안 국채, MBS 를 담보로 대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연준 부의장이 SVB 은행 파산 사태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언급하는 등 정책 당국자들이 잇따라 시장참여자들의 부정적인 자기실현적인 예언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추후에도 또다른 뱅크런 위기 등 관련 불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으나, 하방경직성은 훼손되지 않을 전망이기에 지수 하단(코스피 기준 2,300)은 견고할 것이라는 기존 당사의 관점은 유효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도이체뱅크의 파산 불안,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에도, 2 차전지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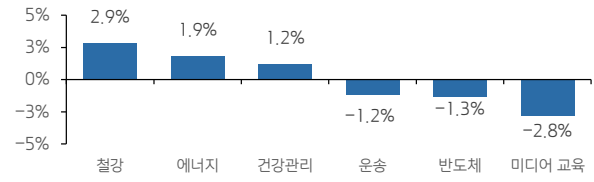
금일에도 퍼스트시티즌스의 SVB 인수에 따른 중 소형 은행권 위기 완화, 달러화 약세 등에 상방 요인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주들에 대한 경계심리 등 하방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은행주 대부분이 동반 강세를 연출했다는 점을 감안 시,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투자심리 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 반등 탄력에 주목할 필요. 또한 현재 업종 간 순환매를 넘어 업종 내 종목 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2 차전지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 및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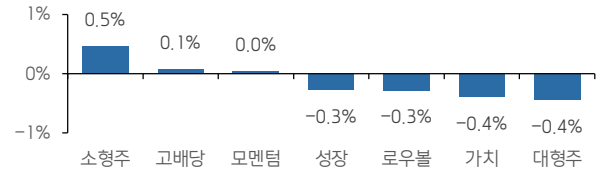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